대중문화 아나토미

1강 :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문제제기

** 20세기 후반 이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다원주의

근대적 이념으로서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항들(binary opposition) - 이성, 주체, 합의, 통일, 자아, 동일성
중심의 헤게모니로서의 보편성(중립, 객관성의 정치성) - 서구,백인,남성,이성애,엘리트(→ political correctness/positionality/partiality)
탈근대적 삶의 조건이자 이념으로서의 다원주의 - 특수성, 차이, 타자, 불일치(dissent), agonistic democracy.
★ 페미니즘, 탈식민주의, 퀴어이론, 대중문화(신좌파 ← 마르크스주의)

** 순응적 다원주의와 급진적 다원주의 :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거리

능력, 성공, 경쟁, 자기계발서, 스펙, 양극화, 신봉건제, 전체주의, 차별, 근대의 극대화, 문화제국주의 - 너그러운 무관심, 취향의 왕국(pleasure), 절대적 차이, 소통의 문제, sowhatism ← 개인, 자유의지, 자결권이라는 환상.
감수성의 영토화와 감수성의 정치. 불편함의 감수성.
절대적 차이가 드러내는 통약불가능성(incommensurability)을 인정할 것인가, 넘어설 것인가
주변의 생존권 투쟁/실천으로서의 다원주의 - 멸종 위기에 처한 소수자/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가? 소수자의 목소리는 목소리인가? 가령 생물학적 여성은 여성인가?

타자/소수자/약자의 재현
긍정적 재현의 문제점 : 동화(assimilation), 전유(appropriation), 영토화
안다는 것은 소유이고, 타자에 대해 알려지는 순간 타자의 고유함(번역불가능한, 들릴 수 없는, 재현불가능한,)은 사라진다.
무엇(객관성, 정확성, 객관성)을 **누가**(정치적 올바름, 입장성), **어떻게** 재현하는가(=어떤 재현이 윤리적인가?)

재현의 윤리의 문제
올바름을 말하는 **방식**이 올바른가, 란 질문
좌와 우가 겹치는(공모하는) 지점 - 올바름의 내용의 차이
좌와 우를 넘어서는 제3의 입장 - 정의를 말하는 방식의 부정의를 자각하는 성찰적 태도.